병신合과 갑기合

ㅿ는 오행분류상 辛金으로 계절로는 가을이고, 사과를 능금이라고 하듯 봄에 생명이 움트고 여름에는 햇살을 받고 성장해 가을에 이르러 결실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열매이자 동시에 다음해 농사의 시작을 품고 있는 씨앗. 부모세대가 물려주는 유산인 DNA가 집약되어 있고, 봄에 생명을 싹틔울 영양분까지 지니고 있는 완벽한 존재. 그래서 농부들은 겨울동안 다음해에 쓸 종자벼을 항아리에 담아 소중히 보관한다.

- 초성ㅿ의 음가는 주류학계에서 별 이견없이 [ʒ]이지만. 모음 뒤에 [z]계열이 오면 영어에서는 jazz의 어원이 되는 jas jasm jaz 등으로 불안정하고, 헝가리어에서 숫자100을 의미하는 száz[sa:z]가 있는데 이 또한 음절의 길이나 intonation에 따라 다르게 들린다. 책의 뒷쪽에 나오는 헝가리가수 Zséda의 Ajtók mögött 뮤직비디오 속 발음을 확인하자.
  조선시대 기록에 〈나랏말ᄊᆞ미〉가 〈나랗말ᄊᆞ미〉로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해례본 용자례(用字例)에 종성ㅿ의 예시가 전혀 없다는 사실과 함께 당대에 종성ㅿ의 음가가 불안정 하였거나 사용자들에게 일관되게 이해되지 못하였슴을 추측케 한다. 또한 종성해에서는 치음 ㅿㅅ의 촉급관계는 후음 ㅇㆆ 간의 관계과 같다고 하였으니, 이는 ㅿ이 ㅅ보다 느린 소리라는 뜻이다.

- 종성ㅿ를 붙여 retroflex(권설음)을 표기하게 되면 IPA 권설음 유성ɖ는 ᄃᇭ가 되고 무성ʈ는 ᄐᇭ가 된다. 데바나가리에서 권설음은 ट ठ ड ढ ण ष 이며 이것들은 종성ㅿ로 표기된다.

retroflex ㅿ	떫 ट ṭa	텋 ठ ṭha	덣 ड ḍa	뎧 ढ ḍha	ᄂᇭ ण ṇa	셣 ष ṣa

- 불청불낙6字 ㆁㄴㄹㅁㅿㅇ는 주로 받침으로 쓰이는데, ㅇ는 역사적으로 종성에서 표기생략 되었고 나머지 불청불낙字와 ㅿ의 겹받침 입력이 가능한지 써보면, [ᇘ ᇓ ᇙ ᇚ]의 형태로 ᄒᆞᆫ글에서 입력이 가능하다. 즉 흔하게 등장하는 받침들(ㆁㄴㄹㅁ)과 권설음 표기를 위한 종성ㅿ를 함께 표기하는게 원활하다. 그러나 영어/그리스어/아랍어 등에 등장하는 δ/θ는 치간음으로서 권설음과는 조음점에 거리가 있어 δ/θ의 표기에 ᄃᇭ/ᄐᇭ를 사용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설정하고 빌려쓰는 것에 불과하다.

- 갑기합은 천간합 중에서 가장 합력이 약하여 ㅋㅁ결합은 관측되지 않고, ᅟᅵ 또한 단어에 따라 소리가 뚜렷하지 않거나 사리진다 할 정도로 약하다. 결합강도 +5 무계합은 무토를 넘어 기토까지 침범하여 ᄝᄲ연서를 형성하고, +4 정임합도 자음2字 병서를 유지하지만, +3 병신합부터는 초성/종성으로 나뉘어 들어가고, +2 을경합에서는 ㆁ가 ㅣ로 바뀌어 싀즤칙(sh·zh·ch)와 ᄉᆡᄌᆡᄎᆡ(zcs)에 쓰인다. 가장 합력이 약한 +1 갑기합 조합(ᄀᆞᆷ/ᄏᆞᆷ) 중에서 'ᄏᆞᆷ'조합은 관찰되지 않는다.
  ᄒᆞᆫ글워드에서 초성자리에는 ᄀᆡ 형태로, 조합형태로는 ᄀᆞᆷ 형태로 입력가능하며 합화오행은 ㊥이다.

	陽	陰	합용자음	확장	합화 오행	결합 강도	합화오행의 성정
무계합	ㅂㅍ	-ㅇ	ᄫv ᄬf	ᄝ ᄲ	火	+5	화·목의 따뜻한 음가 -세상에 먼저 드러남 (원래 형태가 유지됨)
정임합	ㆆㅎ	-ㄴㄹ	ᄂᇹN ᄅᇹR	ㄴㆆ ㄹㆆ	木	+4	
병신합	ㄷㅌ	-ㅿ	ᄃᇭd ᄐᇭt	← δ θ	水	+3	수·금의 차가운 음가 -용도가 감춰져 있음 (ㅿ/ㅇ의 모양이 변함)
을경합	ㅅㅈㅊ	-ㆁ	ᄉᆡ ᄌᆡ ᄎᆡ sh·zh·ch	ㆁ사라짐	金	+2	
갑기합	ㄱㅋ	-ㅁ	ᄀᆡᄋᆞᄀᆞᆷ	ㅁ변동성	㊤	+1	土의 잡스러움 그 ←ᄀᆡ→ 기

a	ă	â	b	c	d	đ	o	ô	ơ	e	ê	u	ư
ㅏ	ㅇㅏ	ㅇㅓ	ㅇㅂ [ʔb]	ㄲ	ㅿ [ʐ]	ㅇㄷ [ʔd]	ㆍㅓ [ɔ]	ㅗ [o]	ㅡㅓ	ㅐ	ㅔ	ㅜ	ㅡ [ɨ]
x	v	**ph**	**ch**	**kh**	**th**	**nh**	**anh**	qu	ng ngh	tr	r	g gh	gi
ㅆ	ㅸ	ㆄ	ㅊ	ㆅ/ㅋ [x]	ㄷ	ㄴㅇ/ㄴㅣ [ɲ]	ㅇㅏㅇㅣ ㅐㄴㅇ	ㄲ	ㅇ [ŋ]	ㅊㅇ [ʧ]	ㅿ [z]	ㄱㅁ [ɣ]	ㅿㅣ [ʑ]

www.omniglot.com

A a Ă ă Â â B b C c D d Đ đ E e Ê ê

a á ớ bê/bờ xê/cờ dê/dờ đê/đờ e ê

[a] [a/aː] [ə] [ɓ/ʔb] [k] [z] [ɗ/ʔd] [ɛ] [e]

G g H h I i K k L l M m N n O o Ô ô

giê/gờ hắt i ngắn ca (e-)lờ (em-)mờ (en-)nờ o ô

[ʒ/ɣ] [h] [i] [k] [l] [m] [n] [ɔ] [o]

Ơ ơ P p Q q R r S s T t U u Ư ư V v

ơ pê/pờ cu/quy (e-)rờ ét-sì/sờ tê/tờ u ư vê/vờ

[əː] [p] [k] [z] [ʂ] [t] [u] [ɨ] [v/j]

X x Y y

ích-xì/xờ i dài/i-cờ-rét

[sʲ~ɕ] [iː]

Other letter combinations

ch gh gi kh ng ngh nh ph qu

[ʧ] [g] [ʐ] [kx~x] [ŋ] [ŋ] [ɲ] [f] [kw]

th tr ach anh ăm ăng ôm ông

[ʰt] [ʈʂ~tʂ] [aĭk] [aĭŋ] [am̯] [am̯ŋ] [om̯] [om̯ŋ]

Diphthongs and triphthongs

ai ay ây ao au âu eo êu ia

[aĭ] [ɛi] [ei] [ɑu̯] [au̯] [əu̯] [ɛu̯] [eu̯] [iə]

iê iêu iu oa oai oă oe oi ôi

[iə] [iəu̯] [iu̯] [wɑ] [wɑĭ] [wa] [wɛ] [ɔi] [oi]

ơi ua ưa uô ươ ui uôi uâ uê

[ɤĭ] [uə] [ɯə] [uə] [ɯə] [uĭ] [uəĭ] [wə] [we]

uơ uy uyê ưi ươi ưu

[wɤ] [wi] [wiə] [ɯĭ] [ɯəi] [ɯu̯]

F J W Z are not the Vietnamese, but are used in foreign loan w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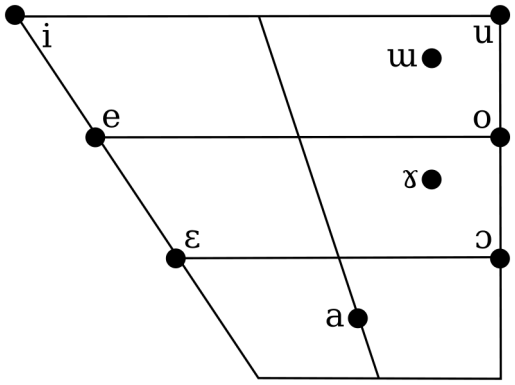
GH & NGH are replacements for G & NG that are used before "I", in order to avoid confusion with the "GI". For historical reasons, they are also used before "E" or "Ê".

G =[ʒ] before i, ê, e
G =[ɣ] else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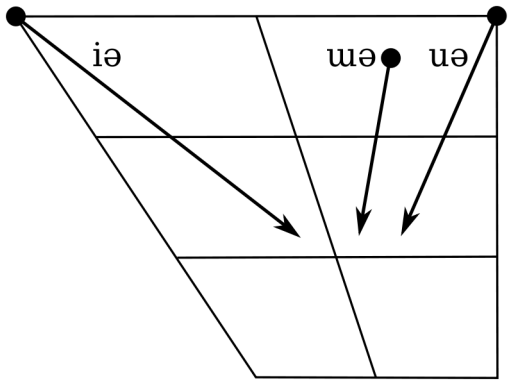
D and GI = [z] in the northern dialects (including Hanoi), and [j] in the central, southern and Saigon dialects.

V is pronounced [v] in the northern dialects, and [j] in the southern dialects.

R = [ʐ, ɹ] in southern dialects



Monothong



Diphthong / Triphthong

I i [i] (short i)	Y y [iː] (long i)	Â â [ə] 허 (short ơ) always got finalC.	Ơ ơ [ə] ㅓ not always		/w/ offglide		/j/ offglide	
					Front	Central		Back
				Centering	iêu ㅣ우 [iə̯w]	ươu ㅡ억우 [ɨə̯w]	ươi ㅡ억이 [ɨə̯j]	uôi ㅜ와이 [uə̯j]
Ă ă [하] (short a)	tăm [땀]	nhân [년]	nhơn [녀언]	Mid	êu [ew]	âu [ə̆w]	ơi [əj] ây [ə̆j]	ôi [oj]
always got finalC.	tam [따암]	thâm [텀]	thơm [트엄]	Open	eo [ɛw]	ao [aw] au [ă̆w]	ai [aj] ay [ă̆j]	oi [ɔj]

uya[ㅜ아] uyê[ㅜ에] oai[ˌㅚ아이] oao[ㅘ오] oeo[ㅚ우] uyu[ㅜ우] oay[ㅘ이] uây[ㅞ이]

베트남어는 17개의 자음과 12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훈민정음의 자모갯수와 유사하여 흥미롭다. 또 11개의 복자음(합용字)를 가지는데 ch gh gi kh ng ngh nh ph qu th tr 이다. 正音도 천간합조합이 ㅸㆄ/ ㄴㆆㅀㅱ/ ㄸㅶㄺ/ ㅅㅈㅊ+ㅇ라고 치면 11~12개로 비슷하다. 알파벳은 로마자에 성조를 표시한 29자의 꾸옥응으(Quốc Ngữ)를 사용하는데 17c 프랑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Alexandre de Rhodes가 고안한 것으로, 20c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다시 정리되었다. 6가지 성조가 있기 때문에 Quốc Ngữ 위에 다시 성조표기까지 덧붙여지니 시각적으로 지저분해 보인다. 아이폰 영문키보드에서 a e i o u 등을 길게 눌러보면 로만-알파벳 기반에 첨자(diacritic)를 붙여 만들어진 문자가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된다. 베트남 가수 MIN이 부른 노래 제목을 유튜브에서 앞글자만 모아 'EMLNYA'로 표기한 것을 봐도 클릭해서 첨자(diacritics)를 입력하는 알파벳은 누구나 불편하며 검색에도 장애가 된다. 노래가사의 正音표기에 성조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각적으로 쾌적하지는 않고, 다만 노래가 좋아 한국인이 이 곡을 따라부르는 경우 '꾸옥응으'를 읽는 것보다는 정음읽기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서란 귀가 아니라 시각을 통해 침묵속에 이뤄지는 행위이니, 상세발음에 집착해 단순미를 잃으면, 문자의 가독성이 손상된다는 것을 베트남 문자가 반면교사로서 보여준다. '한글'은 이것을 잘 지켜내었다. 다시 '꾸옥응으'를 正音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 ă는 'short a'라고 설명하여 [하]로 표기했으나, 실제 단어에서는 대부분 앞뒤로 nasal consonant(ng, m, n 등)가 와서 오히려 [아]의 느낌이다. ăm ăng 조합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고, omniglot에서도 ă [a/aː]로 표시하고 있다. ex) ngắm [암] lặng [랑]

- 베트남b [ʔb/ɓ]와 베트남d [ʔb/ɗ]는 내파음(implosive)으로서 ㅎㅂ/ㅎㄷ로 표기할 수 있겠으나 시각적으로 지저분하다. 꾸옥응으의 설계가 ph ch kh th nh anh 등 –h를 폐쇄음의 마커로 삼았음으로 ㅍ ㅊ ㅋ ㅌ ㄳ 아히/앤 로 대응하면서 ㅎ(glottal stop)을 활용하였다.
- nh[ɲ]는 정임슴 'ㄳ/니'로서 như [늬] đành [`댣] mình [밍] 로 빈발한다. 모음 앞에 올때는 초성 '니'성분으로 생각해서 뒷모음과 결합해 '냐녀뇨뉴' 형태로 변하고, 모음 뒤에 올때는 'ㄳ'로서 단단한 'ㄴ'종성(coda)이라 생각할 수 있다. 훈글워드에서 아직 입력을 구현하지 못한 조합이 여러 언어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천간五슴의 자음 조합이 인간언어 발음 중 보편적 발음에 해당하는 조합이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 /z/계열 발음표기가 무려 3가지로 r[z ㅿ] d[ʐ ㅿ] gi[ʑ ㅿ|]인데, 정음표기시에도 셋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싶고, 예를 들어 giờ[ㅿ+ㅢ]를 [셔]로 표기하였는데 원래의 철자가 r/d와 gi 중에서 어느쪽인지 구분하는 편법에 불과하다.
- ơ ư에 존재하는 첨자는 수염(râu)이라고 불리며 unrounded vowel이라는 의미이다. omniglot에 나온 것처럼 ư가 IPA [ɨ][26]에 해당한다면 해당 正音은 'ᄒᆞ'(모음나침반 참조). ư가 ㅡ/— 어느 것이건 '—'모음을 표기하는 문자를 가진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france [프랑스] strong [스트롱]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영어권에서는 왜 원래 없던 —를 자꾸붙여 음절수를 늘리냐고 의문하는 경우가 있고, '—'가 영모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 모든게 샤걀의 그림처럼 둥둥 떠있게 그리다가, 지표면을 뜻하는 가로선을 그으면 지평선(base-line)이 확고해 지는 것처럼, 모음계의 ground zero로서 [27]영모음 '—'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생각도 있다.
- gần [ɣən 겋]으로 표기할 때 갑기슴 ㄻ[ɣ]가 나타난다. 음가와 활용빈도/합력 모두 약한 소리이다. 종성에 ㅀ의 입력이 불가할 경우에는 긔[ɣ]를 사용해 실제 단어 안에서는 그or기 로 성분이 남으니까 gần [ɣən 근]처럼 표기하게 되며 이는 g발음을 '그'로 표기하는 방법과 겹친다.
- 베트남어는 북부(hanoi)발음이 표준으로서 교육되며, 가수 MIN도 하노이 출신 가수이다. 기본적으로 비음(nasal)이 많아 ng/tr에 불청불낙ㅇ가 쓰이고, 후음에 해당하는 kh[kx~x]도 있어 IPA 자음표에서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목구멍 부근 소리에 대한 이해에 베트남 study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베트남 남부방언에서도 R= [ʐ~ɹ] 사이를 오가고 있다.

---

26) /ɨ/: Many descriptions, such as Thompson, Nguyễn (1970), Nguyễn (1997), consider this vowel to be close back unrounded: [ɯ]. However, Han's instrumental analysis indicates that it is more central than back. Hoang (1965), Brunelle (2003) and Phạm (2006) also transcribe this vowel as central. - wikipedia [vietnamese phonology]

27) 훈민정음은 '후두음 이론'의 결정체이다. 소쉬르의 이론은 그 이전의 이론보다는 훨씬 유용하지만, 그의 이론은 아직 미진하다. 그리고 소쉬르가 그렇게 애써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훈민정음의 창제 이론'이다. 우리말의 [ㅇ,ㆆ,ㅎ]로 되는 자음과 [ㆍ]이 진정한 후두음의 공명음이 된다.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방식으로는, '영모음'으로써 '으'와 '영자음'으로써 'ㅇ'가 또한 중요하다》
훈민정음에서 'ㅇ'소리는 맑고 공허하므로, 종성에는 쓸 필요 없이 중성만으로 가히 음절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ㅇ'음이 '초성/중성/종성'의 폼을 맞추기 위해 있다고 하는 분이 있다. 즉 아무런 음가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크게 잘못된 인식이다. 이는 숫자에서 '영'처럼 훈민정음에서 주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수학에서 '영'의 발견만큼이나, 언어사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인데, 이것으로 우리말은 여느 언어와는 다른 '바른 언어'로 되었고, 그렇지 않은 언어는 모두 망가진 언어로 되어 버렸다. 이는 'ㅇㆍ/이/으'의 3차원 조합에서 비롯되는 후속 모음 조합을 만들어 내어, '아/어, 애/에, 외/위, 얘/예, 왜/웨' 조합들을 추가 파생을 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바른 언어'가 된 것이다.
[제1권 유라시아어의 기원과 한국어. 권중혁 지음]